

Sowing the Seeds of Spiritual Disaster 영적 재앙의 씨앗을 심다. (사사기 1:1-2:5)

Judges & its Relevance

“Family feud leaves 70 brothers dead”
 “Powerful Government leader caught in love nest”
 “Gang rape leads to victim’s death & dismemberment”
 “Girls at party kidnapped & forced to marry strangers”
 “Woman judge says travellers no longer safe on highways”
 They’re the news headlines from Judges

So noted a former Presbyterian Moderator General of Australia, Rev David Jones who also asked the questions..... Why study Judges? Why is it in our Bibles? It’s the world in which we live — those headlines could be in any news story today. It’s not just the world.....it’s Israel.....it’s the church. Tim Keller has described Judges as “despicable people doing deplorable things....trashy tales about dysfunctional characters.”

God’s great purpose is that we would see the horror of sin & where it leads.....that we would flee to the Saviour & rejoice in such a great salvation that He has won at the cross — once & for all.

Though Judges is at times graphic it’s always honest in portraying the bleakness & hopelessness of sin.....by contrast, hope shines in the grace of God to save.

The passage before us today is a particular challenge for ‘half-hearted discipleship’ that shows itself in tolerating compromise with the world....sowing seeds to the flesh as Galatians has warned us about. We can feel like we’re going well in our Christian walks....only one day to find ourselves fallen into a state of spiritual disaster. Well, we’ve heard people say, ‘Where did it all go wrong?’ To express the horror of being rocked by the disastrous situation that they might have averted, if only they’d realised sooner.

사사기와 상관성

사사기의 이야기로 뉴스 헤드라인을 만든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 “가족의 불화로 70 명의 형제들이 죽다”
- “정부 지도자, 밀회 장소에서 적발되다.”
- “집단 성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고 토막 나다”
- “파티 가운데 있던 여성들이 납치되어 생판 모르는 사람과 강제 결혼 당하다”
- “더 이상 고속도로에 있는 여행자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여성 사사가 말하다”

정말 문제가 많아 보이는 사사기에 대해 호주 장로교단의 총회장이었던 **David Jones** 목사는 다음과 같이 질문 합니다. “사사기를 공부할 이유가 있나요? 이런 사사기는 왜 성경에 있는 것일까요?” 팀켈러는 더 나아가, 사사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비열한 사람들이 개탄스러운 행동을 하고, 사람 노릇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쓰레기 같은 이야기.”

사사기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죄의 끔찍함을 깨달으며, 죄가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지를 알게 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로 도망가, 그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구원 안에서 기뻐함에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들이 끔찍해 보일지라도, 한편으로는 어둡고 소망 없는 죄의 민낯을 매우 잘 드러내며, 반면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밝히 비춥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과 타협하는 반쪽짜리 제자도를 도전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던 중에, 갑작스러운 영적 재앙의 상태에 빠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사람들은 조금만 일찍 이 문제를 인식했다면 나왔겠다는 후회와 함께 “어떻게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묻게 됩니다.

Judges generally & this passage particularly serves as a warning by God's grace to alert us to the danger of the seeds of spiritual compromise that we may be sowing....to prevent spiritual disaster by taking action now. So we ask, 'where might I be going wrong?' 'in what areas am I compromising?' 'could it be said of me that I have a half-hearted faith?' May the Spirit humble us & drive us to the Lord to encourage us in His grace.

Judges takes its name from the characters of the historical narrative that God raised up to save Israel from its enemies in the newly acquired promised land. It spans ~ 300 years from the time just after Joshua's death ~ 1350 BC (Israel had entered the Promised Land)... & it ends anticipating the kingdom...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Signs of Covenant Fulfilment (1-19a)

The section before us starts well as it tells the story of the Israelites as they began to complete the conquest of Canaan by occupying the land that Joshua allotted to them in Joshua 13-19.

v1 'After the death of Joshua, the people of Israel inquired of the Lord, "Who shall go up first for us against the Canaanites, to fight against them?" The Lord said, "Judah shall go up; behold, I have given the land into his hand.'"

It's a promising start as we see that the Israelites seeking the Lord.....relating to Him personally... That unique covenant relationship had begun after the Lord rescued Israel from slavery in Egypt under Moses — then gathered them at Mt Sinai, two generations earlier.

사사기와 특별히 오늘 구절은, 우리가 뿌릴 수 있는 영적 타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고 역할을 하고,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영적 재앙의 길로 빠짐을 막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합니다, "내가 잘못된 부분은 어디일까? 내가 어느 부분에서 타협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믿음을 반쪽 자리 믿음인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새로 얻은 약속에 땅에서, 그들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의 역사적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는 1350 BC,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 약 300 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되고, 이스라엘의 왕을 고대할 가운데 마무리합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언약 성취의 증표들 (1~19a)

오늘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마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당한 땅을 차지한 이야기와 함께 시작합니다.

1~2 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연관되어, 주님을 찾고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임으로, 그들의 시작은 꽤 좋아 보입니다. 이런 특별한 언약 관계는, 2 세대 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셔서, 모세의 지도 가운데 그들이 시내 산 아래 모였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The Lord's reply to the Israelites fulfils the prophecy from when Jacob blessed his sons & said this about Judah, in Genesis 49, 'your brothers will praise you; your hand will be on the neck of your enemies...the sceptre will not depart from Judah nor the ruler's staff from between his feet, until he comes to whom it belongs and the obedience of the nations is his.'

So v3, 'Judah said to Simeon his brother, "Come up with me into the territory allotted to me, that we may fight against the Canaanites. And I likewise will go with you into the territory allotted to you." So Simeon went with him.'

True also to Joshua 19 where Joshua gave the tribe of Simeon a portion of land within the inheritance of Judah.....the tribe of Judah leads the tribe of Simeon. They achieve a major victory....V4, 'Then Judah went up and the Lord gave the Canaanites and the Perizzites into their hand, and they defeated 10,000 of them at Bezek. They found Adoni-bezek at Bezek and fought against him and defeated the Canaanites and the Perizzites.'

It's a fulfilment of Moses' prophecy in Deuteronomy 7:1, where the Lord said that He would drive out the 7 nations — larger & stronger than Israel — who were in the PL.

The story focuses on Judah's defeat of the war-lord 'Adoni-Bezek' = 'lord of Bezek'where they capture him & amputate his thumbs & big toes as a way of rendering him unable to fight. Though we sense a particular cruelty.....hear the response from the man himself, v7, "Seventy kings with their thumbs and their big toes cut off used to pick up scraps under my table. As I have done, so God has repaid me." And they brought him to Jerusalem, and he died there.'

As gruesome as his punishment by Judah was....Adoni Bezek senses God's retribution on his own cruel treatment of 70 kings whom he'd conquered & had made sport of in his own household.

또한 오늘 본문 주님의 응답은 창세기 49 장 8~10 절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과 유다에 대한 예언의 성취임을 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서 유다는 오늘 본문 3 절서 다음과 같이 행합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리고 4 절에서 그들은 큰 승리를 얻습니다... 4~5 절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섹에서 만 명을 죽이고 또 베섹에서 아도니 베섹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그들보다 강한 7 만 족을 쫓아내리라는 신명기 7:1 절 모세의 예언에 대한 성취 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다가 아도니 베섹을 패배 시켰다는 사실에 집중 합니다. 유다 족속은 그를 잡아서 그의 엄지와 발가락을 잘라 다시 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잔인한 일에 아도니베섹은 다음과 같이 응답합니다... 7 절 "그러자 아도니베섹은 "내가 일흔 명이나 되는 왕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 내고, 나의 식탁 밑에서 부스러기를 주워서 먹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가 한 그대로 나에게 갚으시는구나!" 하고 탄식하였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다." (새번역)

유다의 처벌이 끔찍해 보일지라도, 아도니베섹은 자신이 정복하고 조롱했던 70 왕들에게 행한 잔인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임을 감지한 것입니다.

As we hear about the particularly evil barbarity of this lord of Canaan — the Lord is reminding us of the particular reason that He had given the land & its inhabitants over to Israel. Deut. 9:4 — the Lord spoke through Moses to Israel saying, it was 'because of the wickedness of these nations the Lord your God is driving them out from before you,'

Genesis 15:16, the Lord spoke to Abram saying that after 400 years as slaves in Egypt....Abram's descendants would come back to the land of Canaan 'in the fourth generation,' at the time when the iniquity of the Amorites was complete.

Israel was a tool of the Lord's retributive justice***The mention of Caleb, his daughter Achsah & her warrior husband, Othniel are further reminders of covenant faithfulness & fulfilment with Judah. Caleb influences the next generation...Othniel & Achsah respond. Judah is a beacon of hope.....leading the charge....capturing Jerusalem & all its surrounding territory...even 3/5 cities of the Philistines v18 ...Gaza....Ashkelon & Ekron'... v19, 'And the Lord was with Judah, and he took possession of the hill country,'

The story to this verse shows the stunning success of the fulfilment of God's covenant predictions to drive out the nations...yet the contrast comes first with Judah.

Signs of Covenant Compromise (19b-36)

v19b, '(but) he could not drive out the inhabitants of the plain because they had chariots of iron.'

Deut 20:1 "When you go out to war against your enemies, and see horses and chariots and an army larger than your own, you shall not be afraid of them, for the Lord your God is with you, who brought you up out of the land of Egypt." Iron chariots were no match for the Lord....here is the change in the passage to show that even for the leading tribe.....something was wrong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토목민들에 대한 야만성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과 민족들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 특별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기 시키 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명기 9:4 에서 주님은 모세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당신들 앞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16 에서 주님은 아브람에게 말씀하시길, 애굽에서 400 년 종살이 이후에, 사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말씀하시고, 그때 즈이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절정에 달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심판의 도구였던 것입니다...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근처 땅을 정복하고, 팔레스타인 도시인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을 정복해 3/5 분의 도시들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19 절에서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은 산간지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새번역)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구절의 이야기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겠다는 하나님 언약적 예언의 놀라운 성취와 성공을 보여 줍니다...그러나 이런 모습과 또한 대비되는 모습을 유다를 통해 보게 됩니다.

언약을 타협하려는 징조 (19~36 절)

19 절 후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신명기 20:1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구절에서는 철 병거는 주님의 상대가 될 수 없음을 보여 줍니다...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던 유다 족속에게 뭔가 잘못되었음이 나타납니다.

But still other things right...v20, '(And) Hebron was given to Caleb, as Moses had said. And he drove out from it the three sons of Anak.'

The chapter moves from victory....to more contrasts showing compromise...v21, 'But the people of Benjamin did not drive out the Jebusites who lived in Jerusalem, so the Jebusites have lived with the people of Benjamin in Jerusalem to this day.'

Regarding Joseph we read from v22 that though they succeed against the city of Luz....They then let the spy who helped them go to the Hittites — another part of Canaan of & v26 we find that he re-established the city to revive Canaanite culture — presumably with all its idols & wickedness.

The rest of the chapter shows that shows little more than signs of failure.....with the repeated refrain...V27, 'Manasseh did not drive out.....V29, 'Ephraim did not drive out....V30, 'Zebulun did not drive out....v31, 'Asher did not drive out....v33, 'Naphthali did not drive out

Each of these tribes we read — like Benjamin — tolerated the Canaanites in living side by side with them — at most they subjected them to forced labour rather than fulfil God's command from Deut 7:2 to 'devote them to complete destruction.' ...to 'make no covenant with them and show no mercy to them.'

Finally the tribe of Dan seems more like the conquered than the conqueror.....V34, 'The Amorites pressed the people of Dan back into the hill country, for they did not allow them to come down to the plain.'

The Lord's Verdict & Discipline (2:1-5)

2:1, 'Now the angel of the Lord went up from Gilgal to Bochim. And he said, "I brought you up from Egypt and brought you into the land that I swore to give to your fathers. I said, 'I will never break my covenant with you, and you shall make no covenant with the inhabitants of this land; you shall break down their altars.' But you have not obeyed my voice. What is this you have done? ."

20 절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전 승리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타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 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리라”

그다음 22 절에서 요셉의 가문은 루스 성읍을 치러 올라 가는 데는 성공 하지만, 정탐꾼들은 그들을 도왔던 가족을 자유롭게 풀어 주었고, 우리가 나중에 보듯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이방 문화를 부활 시켜 우상숭배와 악행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1 장 나머지 구절들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계속해서 나타냅니다...27 절 “므낏세가...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29 절 “에브라임이...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31 절 “아셀이...쫓아내지 못하고”...33 절 “납달리는...쫓아내지 못하고”

신명기 7:2 에서 나타난 주님의 명령과 같이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은 가나안 땅 민족들을 진멸하기보다는, 이방인들을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단 자손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에게 공격을 당해 궁지에 몰리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34 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님의 판결과 징계 (2:1~5 절)

2:1~2 절 “여호와와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킴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In response to God's grace in giving them the land promised to Abraham to where He had led them after the Exodus, the Lord's verdict as to the cause of their military failings was unfaithfulness....compromise..... disobedience.

The Lord is incredulous, 'What is this you have done?' Their sin wasn't failing to drive the Canaanites out – Deut 7:22 'The Lord your God will drive those nations before you, little by little. You will not be allowed to eliminate them all at once, or the wild animals will multiply around you.' Their sin was making a covenant with them.....His verdict — that they had broken faith. In His holiness.....the consequence would be to hand them over to their compromise....

v3, "So now I say, I will not drive them out before you, but they shall become thorns in your sides, and their gods shall be a snare to you." The Lord would not completely drive them out He would let them reap what they had sown.....as a discipline for their half-hearted faith.

Hebrews 12:6, 'the Lord disciplines the one He loves, and chastises every son whom He receives.' That means....in His mercy....sometimes severe....always loving....the Lord disciplines us — trains us — corrects us — purifies us — strengthens us to follow Him

Our fallen response is to speculate that trials are a curse & let them become catalysts to withdraw from the Lord. Instead may they be occasions to trust Him —He desires our holiness...not primarily our personal happiness.

V4, 'As soon as the angel of the Lord spoke these words to all the people of Israel, the people lifted up their voices and wept. And they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Bochim. And they sacrificed there to the Lord.'

출애굽 이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불성실, 타협, 그리고 불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신명기 7:22 절 말씀이 비추어 볼 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단번에 다 없애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였다가는 들짐승이 번성하여 당신들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죄는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지니 못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죄는 이방 민족들과 언약을 맺음에 있었습니다. 이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그들이 타협함의 결과를 맞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울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주님은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 반쪽짜리 믿음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은 그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히 12:6 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그의 자비 가운데, 때로 혹독해 보일지라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징계하시며 훈련 시키시고, 바로 잡으시며,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어 그를 따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의 시련 가운데 보이는 우리의 반응은, 이를 그저 저주로 여기며, 결국 주님께 멀어지는 촉매가 됩니다. 그러나 멀어지는 기회로 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행복한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4~5 절 “여호와와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 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Bokim' means 'weeping'. Their grief raises the possibility of true contrition, repentance & hope...Yet the remainder of Judges will show that it's the start of a pattern of crying out over the trouble upon them rather than a sign of true repentance.

2 Cor 7:10 'For godly grief produces a repentance that leads to salvation without regret, whereas worldly grief produces death.'

Grace for Half-Hearted Disciples

The question remains, in what ways do we exhibit a half-hearted trust? We all have areas in our lives where we respond to the Lord with luke-warm faith.

The answer isn't by trying harder or resolving to turn over new leaves. James 4:4, 'Do you not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enmity with God? Therefore whoever wishe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makes himself an enemy of God.'

Rev 3:19 'Those whom I love, I reprove and discipline, so be zealous and repent.'

True hope is in turning to the perfect son of Israel who never compromised. The wonderful comfort is that the Lord will still glorify His name through our frail & flawed efforts...Yet how much more by grace is there potential to glorify Him as in Christ we respond to the good works He has yet prepared for us to do?

May His grace empower us with renewed zeal to be the people His victory at the cross & over the grave ... has made us to be...that we might be utterly zealous in our affections for Him!

"보김"이라는 단어는 "울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런 슬픈 감정은 그들이 뉘우침과 회개가 참된 회개였다는 사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 나머지 부분을 통해 보듯이 이는 진정한 회개의 표시가 아니라, 그들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 부르짖는 패턴의 시작임을 보여 줍니다.

고후 7: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는 반쪽짜리 믿음을 나타내나요? 우리 모두는 삶의 어느 부분에서 이런 미지근한 믿음으로 주님께 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더 열심히 하려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야고보서 4:4 "간음한 여인들과 세상과 벗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계 3:19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진정한 희망은 절대 타협하지 않으신, 온전한 이스라엘의 아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위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하고 허약한 노력을 통해 여전히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리라는 것입니다...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할 때, 이는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열정으로 더욱 힘 나게 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에 더욱 열중하게 만듭니다!